

‘3사 합병’ SK온, 재무구조 개선... 배터리·트레이딩사 도약

매출 62조, 자산 40조로 증가 전망
연간 5000억 EBITDA 추가 기대
원소재 구매비용 절감 등 시너지

SK온이 3사 합병을 마무리하고 ‘글로벌 배터리&트레이딩 회사’로 새롭게 자리한다. 이번 합병으로 원소재 조달 역량과 재무 건전성이 강화되면서 지속 성장 기반도 한층 탄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지난 1일 SK엔터프라이즈와의 합병 절차를 마쳤다. 이로써 지난 2024년 7월 발표한 SK온-SK트레이딩인터내셔널-SK엔터 3사간 합병이 성공적으로 완료됐다. 3사 합병 법인명은 SK온이다.

앞서 SK온은 지난 2024년 11월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과 합병을 진행했다. 이후 기존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은 ‘SK온 트레이딩 인터내셔널’로 사명을 변경하고 SK온 내 사내독립기업



SK온 서산공장 전경. /SK온

(CIC)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SK온은 연간 500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SK트레이딩인터내셔널의 트레이딩 사업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

SK엔터는 ‘SK온 트레이딩 인터내

셔널’의 터미널 사업부를 맡아 국내 최대 사업용 탱크 터미널 운영을 담당한다. SK그룹의 울산 사업장(울산 CLX)에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시설 등을 보유 중이다.

이번 합병의 핵심 효과는 재무 안정성 강화다. SK온은 아직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적자 전환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증권가에서는 SK온이 4분기 3000억원 대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객사 보상금으로 인한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긴 했으나 출범 첫분기 흑자를 냈던 지난 3분기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SK온은 이번 합병으로 매출과 자산 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병 전인 지난 2023년 말 기준 각각 13조원, 33조원이던 SK온의 매출과 자산은 합병 후 각각 62조원, 40조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연간 5000억원 규모의 감가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추가도 기대된다. 합병된 회사들이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실적 민감도가 낮고 제한적 설비 투자(CAPEX)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안정적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분

석이다. SK온은 개선된 재무 구조를 바탕으로 제조 경쟁력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 나선다. 아울러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차별적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온 트레이딩 인터내셔널’의 트레이딩 노하우를 활용한 합병 시너지도 기대된다. 원소재 구매 비용 절감은 물론, 가격 변동성과 거래 리스크 등 시장 위험 요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존 석유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리튬, 니켈, 코발트 등 배터리 원소재 트레이딩으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SK온 관계자는 “각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합병 후 CIC 형태의 독립적 운영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며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에 이겨내기 위해 구성원의 소통과 협력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중기부, 中企 기술침해 예방·피해구제 나서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실시
기업별 3000만원~70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 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중기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했다.

우선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전문가 등 진단)에 따라 초보기업-유망기업-선도기업의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 최대 6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비율)는 초보기업은 3000

만원(80% 지원), 유망기업은 5000만원(60% 지원), 선도기업은 7000만원(50% 지원)까지다.

‘손해액 산정 지원’은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해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50~90%)한다. 특히 법원으로부터 기술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는 100% 지원한다.

‘기술보호 정책보험’은 국내·외 기술 침해 분쟁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최대 5000만원 한도로 보험료의 70~80%를 지원한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온·오프라인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다. 다만 관련 수수료(1년 30만원)는 기업이 부담한다.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

업’은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최대 8000만원)의 20%는 기업(최대 1600만원)이 부담한다.

‘기술지킴서비스’는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보안관제서비스와 내부정보유출방지·악성코드탐지·랜섬웨어 탐지의 3가지 프로그램(30카피, 3년)을 무료로 제공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피해도 효과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술보호올타리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기업인력애로센터 구인기업·구직자 모집

중기부, 1대1 채용·취업지원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인력애로센터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구인 기업과 구직자를 모집한다.

2일 중기부에 따르면 기업인력애로센터 활용 취업지원 사업은 중진공의 일자리매칭플랫폼과 매칭지원센터를 통한 1대1 채용·취업지원서비스와 대 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1대1 채용·취업지원서비스는 인력 부족을 겪는 중소기업과 취업난을 겪는 구직자를 1대1 맞춤형으로 연결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고,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에는 구인공고 작성, AI 기반 맞춤형 인재 추천, 1대1 구인 컨설팅, 정책 연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구직자에게는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

성 지원, AI 모의 면접, 직무 적성 검사 등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구직자는 기업인력애로센터 매칭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지원 사업은 대·중견기업이 보유한 교육 인프라와 현장 전문인력을 활용해 청년구직자에게 현장 맞춤형 직무교육을 실시한 후 협력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 지원한다.

올해는 사업규모를 확대해 10개 이상의 대·중견기업 사업단에서 청년구직자 950명을 교육시켜 600명의 취업지원을 목표로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만 35세 미만의 청년구직자는 일자리매칭플랫폼에서 참여사업단과 사업단별 모집규모와 직무 교육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중견기업 사업단에 참여의사가 있는 사업단은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협력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승호 기자

中企 협동조합 아이디어 발굴·사업화 지원

중기중앙회, 공동사업 지원 접수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신규 아이디어 발굴부터 공동사업 모델 구축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통해 협업 활성화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모집계획을 사전 안내한다고 2일 밝혔다.

‘협동조합 공동사업 지원사업’은 ▲사업개발지원 ▲인력지원 ▲자금 지원으로 구분하며 협동조합 및 조합원사인 중소기업이 필요한 지원에 따라 각 사업별 자격요건을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개발지원’에는 ▲신규 공동사

업 아이디어 발굴을 상시 지원하는 공동사업SOS지원단(컨설턴트 배정 및 지원) ▲공동사업의 사업화 계획 추진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문 컨설팅 지원(컨소시엄당 최대 1500만원 지원) ▲협업모델 구축 및 사업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조합당 직접사업비 최대 1억원 지원)이 있다.

혁신형 공동사업 지원사업 및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은 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사업 전담주치의의를 통해 신규 또는 기존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맞춤형 진단·자문도 상시 지원하고 있다.

‘인력지원’에는 공동사업 전문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전문인력 지원사업(조합당 1명, 최대 한도 월200만원 지원)이 해당한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이달 중 공고할 계획이다.

또 ‘자금지원’에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자금 보증을 지원하는 공동구매 전용보증 지원사업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을 추천하는 협동화자금 추천사업 등이 있다.

중기중앙회 조진형 상근부회장 직무대행은 “개별공고 이전 모집계획 사전 안내를 통해 공동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이 관심 사업에 대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동조합이 효과적으로 공동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방향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벽걸이·스탠드 겸용 공청기 출시

코웨이가 벽걸이와 스탠드 겸용으로 공간 활용성을 높인 ‘2025년형 벽걸이 공기청정기2(AP-1225F)’(사진)를 출시했다.

2일 코웨이에 따르면 신제품은 벽면 설치가 가능해 복잡하고 좁은 공간에 설치가 쉽고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스탠드형 겸용으로 손 닿는 곳에 두고 편리하게 관리하고 싶으면 변경해 사용할 수 있다.

신제품은 12평형급 제품으로 4단계 필터시스템을 탑재해 초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발생하는 냄새까지 케어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관리한다.

4단계 필터시스템은 0.01 μm(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초미세먼지를 99.99% 제거한다. 여기에 에어매칭 필터를 통해 맞춤형 공기 관리까지 지원한다. 에어매칭 필터는 ▲미세먼지집중 필터 ▲새집필터 ▲이중탈취필터 중 선택해 장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벽걸이·스탠드 겸용 공청기 출시